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인터넷 카페가 코레일로부터 무리한 지원요구를 받았다는 보도, 반론보도 게재로 중재결정

A 신문사는 코레일의 다수의 지역본부가 국내 최대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전문 카페 회원들에게 수년간 각종 선물과 협찬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는 코레일 지역본부의 초청을 받아 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열차 경비 등의 기초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했고, 지역에서 받은 선물 또한 여행지의 홍보기념품이었으며, 5년간 지원한 내역이 역대에 달한다는 내용은 과장된 표현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조정심리 과정에서 신청인과 언론사는 조정신청은 취하하고 중재신청에 합의함으로써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중재부는 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토록 중재결정을 했다.

※ 중재는 신청인과 언론사가 중재부의 종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초상권 침해 사례 | 과거에 찍은 사진 최근 기사에 동의없이 게재, 200만 원 배상

C 신문사는 온라인 도박 중독의 폐해를 보도하면서 내부 DB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검색해 게재했다. 신청인은 C 신문사와 같은 법인인 D 언론사에 과거 초상 사용을 허락한 바 있으나, C 신문사에 대해서는 초상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중재부는 초상과 함께 신청인의 나이와 성씨 등이 게재되어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신청인이 C 신문사에 대해서는 초상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유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유재범 _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기치로 달려온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중재위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지상파방송 및 신문 외에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기사 등 뉴스와 보도의 홍수 속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언론이 권력중속적이거나 사유화가 되지 않고, 비판적 기능을 유지하고 정부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가 좋은 길라잡이와 견인차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승진 _ 임종우 조사관이 쓴 조정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에는 신청인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직접 조정을 담당한 위원회 직원의 후기를 읽는 것도 독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조정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게 돕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송 건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만한 해결을 이끄는 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신청인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 역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불필요한 시간, 금전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조정후기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범 _ 그동안 [언론  사람]을 읽고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테마가 다양하지 않고 내용이 다소 난해해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신 동의보감 코너를 통해 전문적이고도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인한 계절 4월을 맞이하여 황사나 알레르기고 고생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내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금연, 황사예보 발생 시 야외운동 삼가하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황사대비법을 잘 실천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리라 다짐해 봅니다.